반목과 불신깨고 경의로 하나되자

기호 2번측 '후보자격'에 대해 심의요구

산대 김수영, 재선거 출마의사 개진

수원캠퍼스 학생회선거 취재 낙수

산대선거 무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수영(도예 3)양의 후보자격을 박탈해 관심을 모았던 산업대 학생회장 선거는 총유권자 7백66명 중 5백67명이 투표하였으나 투표인 중 2백92명이 윤여정(원예 3)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져 선거무효가 선언되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17일 김수영양은 자신을 지지한 5백62명 산대학생들의 서명서를 갖고 중선관위장을 찾아가 "독단적인 자격박탈 철회와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선관위장은 "중선관위가 탄핵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중선관위원들을 소집해 다시한번 논의를 거친 후 결정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양은 산대학생회장 재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며 재선거의 시기를 "산대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달 말 안으로 치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선관위장은 재선거는 "이번 학기내에는 어렵고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대는 산대 학생회장 선거시기를 21일 오후 6시 산대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지체 결정하기로 했다.

후보자격 논란

총학생회 후보 기호 2번 김상일(전산 3), 신영호(물리 3) 선거운동 본부는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내 관련부서에 기호 1번 한수일(산업공 2) 총학생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에 관해 의문을 제기, 질의서를 보내 '선거시행세칙 7조1항 후보자격 요건중 후보자격은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후보에게 후보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칙에 의거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교무처 학적과에서 보내온 등록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통해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 후보 자격요건은 학년이 아닌 등록학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중선관위의 답변서를 받은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중선관위와 관련부서에 '답변서 중 1988년 2학기 재등록 조건 휴학이 6학기안에 산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학칙상 휴학학기를 등록한 학기로 인정하는가의 의문이 제기되므로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려달라'는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

한편 교무처에서는 "한수일 후보는 1988년 2학기 등록을 했으나 학기중 재등록 조건 휴학을 했으므로 등록은 했지만 학기를 이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6학기 등록을 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6학기 필'조항을 단순한 학기등록으로 보느냐, 학기 이수로 보느냐에 따라 기호 1번의 후보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므로 기호 2번측의 2차 질의서에 대한 중선관위의 답변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명서 파문

각 자치기구 대표자들이 연서로 작성해 지난 14일 학내에 배포된 '학교당국의 학생회 선거개입에 대한 각 자치기구 대표자 성명서'의 내용중 '학생처의 진치규 주임이 동아리 체육분과를 돌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해 그 당사자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임은 지난 16일 학내에 배포한 '학생회의 날조된 유인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은 "각 자치기구장의 성명서에 게재된 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절대 없다"며 "허무맹랑하게 날조된 혹색선전유 개탄하며 현 부총학생장 및 학자추장은 날조된 혹색선전에 대해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 부총학생장과 학자추장을 만나 그런 말을 한 사람과 대면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좀 더 조사해 보겠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혹색선전과 비방을 일삼는 이러한 상황은 하루빨리 학원내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총학생회장 이혁회군(식공 4)은 "진치규 주임이 학생회에서 허무맹랑한 사실을 날조하였다고 했는데 제보가 들어와 유인물에 그대로 실었을 뿐이지 날조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학생회장은 또 "현 부총학생회장과 학자추장이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성명서는 자치기구 대표들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작성한 것이지 부총학생회장이 대표가 된것이 아니며 학자추장은 성명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중 자제키로

각 자치기구 대표자들이 연서로 작성한 '학교당국의 학생회 선거개입에 대한 각 자치기구 대표자 성명서'에 '이미 드러난 학교당국의 직·간접적인 학생회 선거 개입 사례'가 실려 논란이 되고 있다.

개입사례에 대해 유인물에 거명된 사람 중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과장이 자기 과 학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는 교수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선관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한 시비는 총학선거가 끝난 후 가리겠다"고 밝혔다.

통제 안되는 유인물

이번 선거기간중에 선거와 관련된 10여종의 유인물들이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내에 배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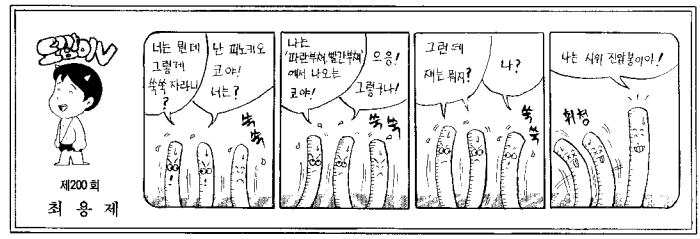
중선관위는 지금까지 '경희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임', '에스페란토', '학교직원', '전자과 2학년 김재열', '학생자치기구장' 등의 명의로 나간 유인물 모두를 중선관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물로 규정하고 조사적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PC통신상에도 알려져

또한 'PC통신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 방'에 김태영이란 이름의 가입자가 우리학교 선거상황을 알리는 글에서 종학후보 기호 1번은 '지주추보', 기호 2번은 '백색후보'라고 비난하고 '학교당국은 학생회 선거개입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선관위가 현재 진상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모든 조사작업을 마친다 해도 원만한 선거를 위해 총학생회 선거가 끝날때까지 쳐벌문제는 유보하겠다"고 밝혀 통제되지 않은 유인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거 특별취재반〉



강행…반발…뇌관의 핵

연구처 연구활성화 통해 학교발전 위한 것

연구소 대학평가제 겨냥한 행정 편의주의

연구소 통폐합안 교무위원회 통과 파장

서울캠퍼스의 30개 연구소를 19개 연구소로 통폐합,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연구처가 제안한 '과감한' 조치이다. 연구소를 통폐합하면 연구원도 늘고 자료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 연구가 활발해질것이라고 연구처는 말한다. 연구의 활성화는 곧바로 학교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연구처의 설명이다.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부총장, 총장 결재를 남겨둔 연구처의 최종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교육문제연구소, 경희법학연구소, 산업관계연구소, 민속학연구소, 경희언어교육연구원, 학생생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체육과학연구소, 한국조류연구소, 경희동서의학연구소, 경희동서약학연구소, 구강생물학연구소, 내분비연구소 이상 13개 연구소는 변동이 없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밝은사회문제연구소, 국제평화연구소는 인류사회재건연구원으로 △경희경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커뮤니케이션조사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경희행정문제연구소는 사회과학연구원으로 △국토종합개발연구소는 수원지역문제연구소로 △태양에너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소로 △한의학고전연구소, 한의학연구소는 한의학연구소로 통합된다. △전통문화연구소, 고고미술사연구소, 경희알타이어연구소는 인문학연구소로 △유해물질연구소는 지구환경연구소로 개편된다. 이중에서 연구처의 11월안이 나오기전에 △통합을 단행한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밝은사회문제연구소, 국제평화연구소(3개 연구소) △통합·개편하기로 합의를 본 경희 알타이어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 고고미술사연구소(3개 연구소) △이름을 변경하기로 합의를 본 유해물질연구소(1개 연구소) 등 7개 연구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10개 연구소는 어떤 식으로든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처의 통폐합안은 올해 1월에 공개되었다. 연구처는 "이의가 있으면 발해달라"는 공문을 각 연구소로 보냈고, 학술연구운영위원회(위원장 정륙근 연구처장), 실무부서 장회의,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지난 8일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11월안은 통합을 단행했거나 통합을 단행하기로 합의를 본 연구소 외에는 1월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통폐합대상 연구소의 이의서는 '참고자료'일 뿐이었고,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다. 통폐합 기준은 최근 3년간(92, 93, 94년)의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과제, 학술지 발행, 행사건수, 적립기금 및 운영비, 기자재, 도서 및 자료수, 연구수행 및 관리능력이나 사실상 연구비 수혜실적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안이 발표되었을때부터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태를 예의주시했을 통합대상연구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총장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연구소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연구처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국토종합개발연구소의 임근옥 전산실장은 "최근 3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박사과정에 있는 태양에너지연구소의 선경호 연구원은 "흡수통합하는 연구소보다 우리 연구소가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선연구원은 "성격이 다른 연구소를 합친다는 것은 연구의 기초도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연구업적은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인데 연구과제 건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걸은 더 나아가 선 연구원은 "그 숫자라는 것도 어떤 논문은 순수한 연구소의 실적이고 어떤 논문은 교수 개인의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연구실적 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선 연구원은 "말이 좋아 통합이지, 흡수통합되면 우리 연구소는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기서는(통합된 연구소)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연구소의 B연구조교(석사과정)는 "통합의 목적이 대학평가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연구활성화와는 상관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처의 11월안은 교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한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1월안이 몰고올 파장은 간단치가 않은 것 같다. C연구소장은 동료교수의 서명을 받아 공영일 총장에게 통합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행과 반발의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김중석 기자〉

취재노트

찢겨진 대자보

◇…'그림속의 미소'='그림속의 떡'

인기에 민감하기로 소문난 문만나랏님께서 날로추락하는 인기를 회복할 획기적 처방을 내놓으셨다는데.

노트구 알아본즉, 관공서의 나랏님 초상화를 자연스레 웃고 있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교체하신다고.

사진 속의 미소 뿐 아니라 관공서를 이용하는 백성들도 웃음지을 때 나랏님의 인기가 만회되지 않겠소.

◇지갑=앙심(?)

서천골 사회대 某학과 사무실에 현장수사본부가 설치돼 쌀쌀한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긴다기에 노트구 알아본즉.

화장실에서 누군가 한 건 올렸을때 피눈물 흘리던 한 獅형의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자 동기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것.

노트구 생각건대 잃어버린 지갑은 찾을지 모르지만 슬픔에 獅형의 분실된 양심은 어디서 찾을 런지 심히 안타깝소.

◇…서천골 플래툰

무자별 선전공세에 맞선 의지의 '경희인(?)'이 발마다 활약한다는 소문이 났으니.

벽마다 도배되어 보기에 거북함이 이윤지, 담고 있는 내용에 적극반대 함인지 남들이 안보는 한밤중을 틈타 대자보 찢어 내기에 열중하는 獅형이 있어 소문의 뿌리가 된 듯.

올고 그름은 많은 獅형들이 대자보를 접한 후 자연히 판단될 일.

대자보마저 찢기는 것은 자유의 상아탑에서 자행되어선 안될 일인듯.

◇…꼭꼭 숨어라. 獅형들붙라(?)

고황골에는 20여년동안 獅형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물이 있다길래 노트구 찾아보니.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때단채 한의대 동편에 우뚝선, 불꺼진 자연사 박물관이 그 주인공이라.

현장감있는 연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을 박물관 입구에 선 獅형들 가슴에 '백곤이 붙여 일견'이라는 옛 속담만이 메아리 치는구료.

◇…통신의 사각지대

고황골 사범대는 통신의 사각지대라고 정평이 나 있어 노트구 알아본 즉 하나뿐인 카드공중전화가 잦은 고장으로 사범대獅형들의 원성을 산다고.

당국자 나으리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데, 등교길 힘든 사범대獅형들에게 '통신의 자유'를 허락하심이 어떨런지.

외국어,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국어에 끌려 다니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합니까?
국제화시대, 무역전쟁시대의 외국어는 전쟁의 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외국어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I CAN DO IT"
25년 동안의 현장교육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파고다의 혁신적인 외국어교육 프로그램과 만나십시오.
세계 아홉나라에서 선발된 막강 엘리트 군단이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서게 할 것입니다.

세계 4번째로 남극점 도달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중앙이 고인경 탐험대장 (본학원장, 홍익벽 대원(본학원)

한단 하이테크 시장과 벤처를 맞다: 교수진이 함께하는 -
파고다외국어학원

영 어
-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명 정원, 1일 1시간 1년과정/전원 미국인교수
-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FIFTY-FIFTY, A CONVERSATION/LADO/LINE BY LINE
- 영어청취·어휘/유학·진학·취업: AFKN/TOEFL L/C/TIME, TOEFL/GRE/GMAT/TOEIC

※문법, 독해, 작문, 발음교정, 청취등 국내 최고 교수진

최신 영어특강 프로그램
- INTENSIVE S.L.E. COURSE: 1일 2시간 주5회/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최신교재/교수전원 미국인
- INTENSIVE ENGLISH COURSE: 영어만 사용, 석사학위 미국인 교수등에 의한 영어문법, 작문, 회화의 종합적 능력 완성을 위한 주5일 교육 (1일 5시간교육) ※미국대학강의 프로그램
-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파고다 → 미국 위스콘신大; 2-4개월(1일5시간교육) 교육중 입학허가서 취득; 2-4개월(1일4시간교육) 교육중 대학입학

일 본 어
-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작문
- 스크린 일어회화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 일본인 회화(초급 Ⅰ·Ⅱ·Ⅲ)
-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교수 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출신

독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 독어강좌
- 프랑스인 불어강좌
- 중국인 중국어강좌
- 스페인어강좌
- 러시아 인 강좌 및 모스크바大: 1일 3시간/1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大 입학

종로 274-4000 종로 파고다공원 앞 횡단
업구정 3442-4000 전철 압구정역 동호대교 끝
신촌 362-4000 이대 전철역 7번 출구 5m
강남 501-4002 강남 전철역 2번 출구 써티빌딩

I CAN DO IT